

긴 투병끝에 찾은 행복

글서미란(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

결핵 진단을 받기 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었다.
진단 받기 3개월쯤 전에 몸살을 앓은 적이 있긴 했지만
그게 결핵의 증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와 아이가 함께 결핵 치료에 들어간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일 년 전의 일이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결핵에 걸렸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일찍 병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치료도 쉽고 빠르게 끝났다는 건 정말이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작년 여름 내내 의욕 없는 사람처럼 자꾸만 지치고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지는 날이 계속 됐다. 이참에 건강검진이나 받아보자고 보건소에 예약을 해놓고 2주를 기다렸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몇일 후 보건소에서 x-ray만 다시 찍어보자는 전화가 왔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대부분 재촬영을 하니 걱정 말고 다시 찍어보란다.

하지만 즉석에서 필름 확인을 한 의사선생님은 처음 건강검진 때 찍은 필름과 똑같이 '결핵'이라는 판정을 내리셨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주신 그 의사선생님이셨다. 어떤 사람들은 결핵에 걸렸는지도 모르게 자연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냥 치료 안하고 있으면 안되느냐'고 물으니, 시간이 지나면 얼굴 검게 변하고 폐도 시커멓게 되서 숨 못 쉬고 죽는다며 겁을 주신다.

겁도 났지만 보건소의 진단결과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결핵전문병원을 찾다가 시립서북병원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도 x-ray를 찍고 결핵이 맞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루가 급한 병이라 약부터 먹어야 한다고 했다. 약은 보건소에서 받은 약을 먹기로 했다. 똑같

은 효능에 보건소 약이 더
싸고 집에서 거리도 훨씬
가까우니 그게 나올 거 같았
다. 결핵약은 독해서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 2주 후에 간독성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식전에
약을 먹었다. 그리고 그 당
시 44개월이었던 우리 아
이도 검사를 받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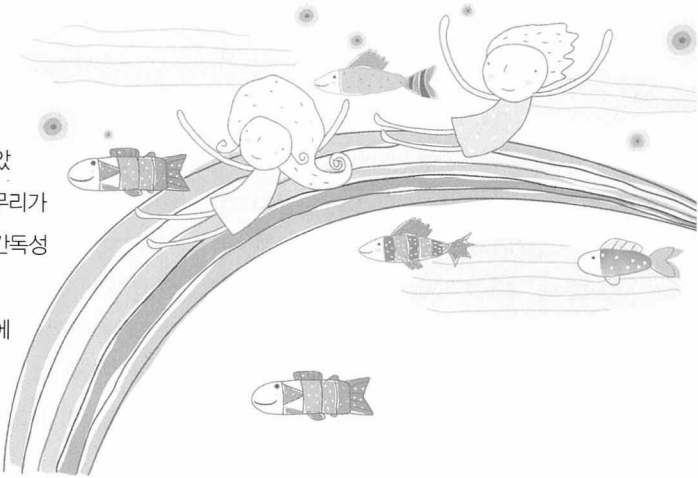
아이들은 객담 검사를 할 수 없어 x-ray와 혈액, 결핵반응 검사로 확인한다고 한다. 3일 후 확
인하는 결핵반응 결과는 소아 때 맞춘 BCG 영향으로 양성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 애매하다 하고
x-ray와 혈액 검사결과는 이상 없었으나, 엄마가 환자이니 예방차원에서 아이나를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단다.

결핵은 호흡기 전염이라서 가족간 전염이 쉽기 때문에 가까이 지낸 식구들도 모두 검사를 받아
야 한다고 한다. 친정식구들도 걱정이 됐다. 아이를 자주 맡겼고 가까이 살다보니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약을 먹고 일주일 지나니 팔 다리 온몸에 불긋불긋 반점이 돋기 시작했다.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고 한 달치 약을 주면서 약이 독해 그럴 수 있지만 피부 반점이나 가려움 정도는 그냥 생활이려
니 하고 무시하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결핵균은 더 독하고 빨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약 먹는 걸
거르거나 시간을 어기지 말고 꼭 먹어야 한다고 했다.

어차피 몇일 후면 간기능 검사받으러 서북병원에 가야 하니깐 그날 선생님과 상의할 생각으로
약은 계속 먹었다. 그런데 상태가 점점 심해졌다. 얼굴이며 귓볼까지 벌겋게 통통 붓고 온 몸도 반
점이 아니라 그냥 붉었다.

서북병원 담당선생님을 만나러 간 월요일, 나의 상태를 보시던 선생님은 바로 입원을 하라고 하
셨다. 약이 몸에 맞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인데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결핵균을
다 잡기도 전에 내장기관이 다 망가질 거라고 했다. 어떤 약에 의한 부작용인지 알아내려면 입원을
해서 하루하루 상태를 체크해야 약을 맞출 수 있다고도 했다. 덜컥 겁이 났다. 온갖 걱정이 밀려왔





다. 아이 낳고 지금까지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는데, 나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건강해져야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고 우리 가정이 건강할 테니까.

입원하고 다음 날 아이와 신랑, 친정엄마까지 검사를 위해 오시라고 했다. 다행히 신랑과 친정엄마는 객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문제는 우리 아이. 처음 x-ray 찍을 때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불과 2주 후에 찍은 사진에서는 결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아이나 한 가지 만으로는 안 된단다. 총 세 가지 약을 아이가 먹기 좋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먹었는데, 이를 정도는 넘어가는 듯 싶더니 도로 게워냈다. 그리고 약을 보면 먹기 싫어 입을 막고 도망가고... 여느 감기약처럼 일주일 정도 먹이고 나면 낫는 병이 아니었다. 이런 약을 1년을 먹어야 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다.

결핵 진단을 받기 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었다. 조금 피곤하다 싶고 진단 받기 3개월쯤 전에 온몸을 쿡쿡 쑤시는 몸살을 앓은 적이 있긴 했지만 그게 결핵의 증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이를 혼낼 때 큰 소리 친 게 아이에게 전염시킨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정말 괴로웠다. 난 왜 자상한 엄마가 못돼서 착하게 잘 노는 아이에게 소리치고 혼을 냈을까, 하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생각까지 들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이에게 잘 해줘야지, 상냥하게 조심조심 말해야지 하는데, 막상 잘 놀다가도 떼 쓰는 아이를 보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다.

입원한지 열흘이 다 되어갈 때까지 나는 10알이 넘는 약 중 한 알도 못 맞추고 있었다. 누가 보면 나이롱 환자마냥 링거도 없이 환자복 입고 주는 밥 세 끼 꼬박꼬박 먹는 것도 고통이었다. 빠르면 2주, 늦어도 3주 정도면 약을 맞출 수 있을 거라 하셨는데, 조바심도 나고 집 걱정에 아이 걱정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차피 아이도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야 하고 때때로 검사도 해야 하니가 같이 입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아이를 입원시켰다. 아이가 입원해 있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며 간호사 선생님들도 걱정하셨지만 아이를 옆에 두니 내 맘이 한결 편했다. 다행히 아이도 낫설어하지 않고 약도 잘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혈액 검사도 잘 받았다. 약이 한 알 한 알 맞아가기까 부작용도 없고 늘리는 대로 잘 맞아갔다. 그 사이 아이에게 부작용 기미는 없었고 몸무게도 거의 일 년만에 변화가 생겼다.

약 다 맞추고 퇴원하기까지 5주 정도 걸린 것 같다. 나도 입원할 때 입고 온 바지가



맞지 않아 한 치수 큰 사이즈로 입고 나갈 만큼 몸무게가 늘었다. 병을 얻고 나서 특별히 체중의 변화는 없었다. 5년 전 결혼하기 직전 갑자기 살이 좀 빠지더니 그 몸무게가 아이 낳고 나서도 유지됐고 결핵약을 먹기 전까지도 그 몸무게였다. 그러다가 약 먹으면서 육식 위주로 좀 챙겨 먹어서 인지 체중이 4kg 정도 늘었다.

아이도 병을 앓기 전에는 13kg을 1년 정도 유지하다가 치료약 먹으면서 지금은 19kg이나 나간다. 봄에 신던 신발도 안 맞고 끝단을 한 번씩 접어 입혔던 옷들이 모두 딱 맞거나 좀 작게 느껴진다. 작년 여름에는 얼굴에 버즘처럼 눈썹 주위며 볼 군데군데가 하얗게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환절기인데도 얼굴에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 같다. 최근 일 년 동안 보통 감기로 병원 찾은 횟수가 두 번 정도인 것 같다. 그것도 작년 겨울부터 올 봄 사이고, 올 봄 이후로는 감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영래 담당 소아과 선생님은 결핵약이 감기에 잘 안 걸리게 하거나 밥을 더 잘 먹게 하는 건 절대 아닌데, 다른 환자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한다고 한다.

우리 처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놀아서 혈색도 좋고 살도 많이 올랐다 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눈곱도 안 떴고 빈 속에 약을 먹고 먹어야 하는 심정을 겪어보지 않고 알 수 있을까?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간기능 검사를 받으러 갈 때면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맘을 졸이곤 했다. 항상 피곤해하지 않게 낮잠도 재우고 살살 놀게 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고기 반찬 챙겨놓고...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없고 진짜 하나도 안 아픈데 약을 먹으라고 하니 우리 아이는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핵은 완치라는 게 없다고 한다. 한 번 걸렸던 사람이라면, 수십 년 후에 다시 걸려도 '재발' 이란다. 그래서 재발하면 예전에 치료했던 약들이 안 들어서 처음보다 더 고생하고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단다.

우리 아이는 이제 5살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관리를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몸이 약해있을 때 또 다시 들어오면 어쩌나하는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 그래도 항상 좋은 생각하며 몸도 많이 움직이고 영양이 있는 음식 잘 먹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노력한다.

지난 주에 아이 약을 끊으면서 조촐한 파티를 해줬다. 아이에게 미안한 맘, 고마운 맘, 기특하고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맘, 너무나도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요동친다. ♣